



투어라즈가 알려주는 관광동향 보고서

2024.11

관광업계 동향 ('24년 11월호)

CONTENTS

1. 관광업계 현황	3
2. 국내 관광 동향	7
3. 해외 관광 동향	20
4. 협회/유관기관 동향	23
5. 이슈 브리프: 국가별 비자규정과 전자여행허가제도	25
6. 1330 상담 데이터 분석 결과('24. 10월)	34
별첨1. 연도별 관광업계 현황	39
별첨2. 관광 유관기관 현황	41



관광업계 현황



전국 업종별 관광사업체 수 ('24. 10월 기준,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단위: 개, %)

구분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계
사업체 수	21,891	10,787	1,776	3,044	2,726	1,547	18	41,789

주요 상장 여행사 매출액 및 고용현황 ('24. 상반기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매출액

구분	'24년 상반기 매출액	'23년 상반기 매출액	'19년 상반기 매출액 (코로나19 이전)	증감률(%)		관광 숙박업
				'23년 比	'19년 比	
하나투어	3,098억 원	1,594억 원	3,163억 원	94.4	△2.1	
모두투어	1,312억 원	813억 원	1,625억 원	61.4	△19.3	
노랑풍선	690억 원	419억 원	502억 원	64.7	37.5	
참좋은여행	421억 원	289억 원	326억 원	45.7	29.1	
롯데관광개발 (전체)	2,223억 원	1,240억 원	402억 원	79.3	453.0	
롯데관광개발 (여행사업)	424억 원	309억 원	242억 원	37.2	75.2	
레드캡투어 (전체)	1,845억 원	1,652억 원	1,329억 원	11.7	38.8	
레드캡투어 (여행사업)	215억 원	188억 원	254억 원	14.4	△15.4	

• 고용인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구분	'24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코로나19 이전)	증감률(%)	
				'23년 比	'19년 比
하나투어	1,214명	1,187명	2,320명	2.3	△47.7
모두투어	583명	557명	1,079명	4.7	△46.0
노랑풍선	491명	406명	571명	20.9	△14.0
참좋은여행	336명	278명	351명	20.9	△4.3
롯데관광개발*	1,001명	1,030명	397명	△2.8	152.1
레드캡투어*	144명	141명	254명	2.1	△43.3

* 롯데관광개발: '21년부터 호텔 부문 고용인원 포함

* 레드캡투어: 여행 부문만 집계(렌터카 등 제외)

관광 관련 업종 카드 승인 실적 분석 ('24. 3분기 기준, 출처: 여신금융협회)

- '24년 3분기 관광 관련 업종별 카드 승인 실적은 다음과 같음.

운수업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단, 전 분기(4.9%) 대비 증가율은 둔화
숙박 및 음식점	보험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p>각종 스포츠경기장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테마파크 등의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관측</p> <p>* 경기장 운영업 생산지수: ('23. 7~8월) 1,368.7 → ('24. 7~8월) 1,417.4 (3.6% ↑)</p> <p>*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생산지수: ('23. 7~8월) 333.7 → ('24. 7~8월) 311.3 (6.7% ↓)</p>



운수업

해외여행 증가 및 항공,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

보험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장 실적은 개선되었으나,
테마파크 등의 실적은 감소

관광 관련 업종 카드 승인 실적 분석 ('24. 3분기 기준, 출처: 여신금융협회)

• 관광 관련 업종 카드 승인 실적

(단위: 백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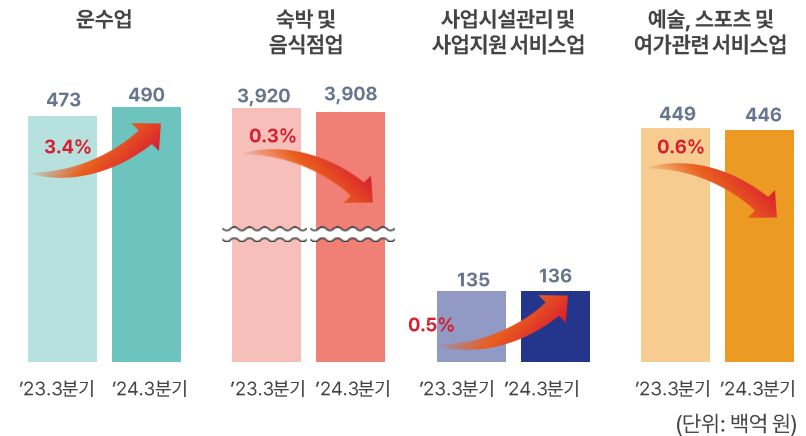
한국표준산업분류	'24.3분기	'23.3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감액	증감률(%)
운수업	490	473	16.2	3.4
숙박 및 음식점업	3,908	3,920	△11.6	△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36	135	0.7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46	449	△2.9	△0.6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총 21개) 중 관광 분야와 관련이 높은 업종 발췌

• (참고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부 업종 사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사례
운수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 여객 및 화물 터미널 운영, 화물운송 중개 등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업: 호텔, 여관 휴양콘도 등 • 음식점업: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일반음식점, 주점, 커피숍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의 청소·방제·관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 고용지원, 보안(경비·경호), 사업지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공연장 운영, 스포츠센터, 박물관,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골프장, 스포츠클럽, 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

• 전년동기대비 관광 관련 업종 카드 승인 실적 증감 현황



• (참고2)

- 국제선 항공여객수(한국항공협회):
('23. 9월) 5,928천 명 → ('24. 9월) 7,219천 명 (21.8% ↑)
- 국내선 항공여객수(한국항공협회):
('23. 9월) 2,591천 명 → ('24. 9월) 2,558천 명 (1.3% ↓)
- 여행사업 생산지수(통계청):
('23. 9월) 387.7 → ('24. 9월) 400.2 (3.2% ↑)
- 숙박업 생산지수(통계청):
('23. 9월) 146.2 → ('24. 9월) 138.3 (5.4% ↓)

국내 관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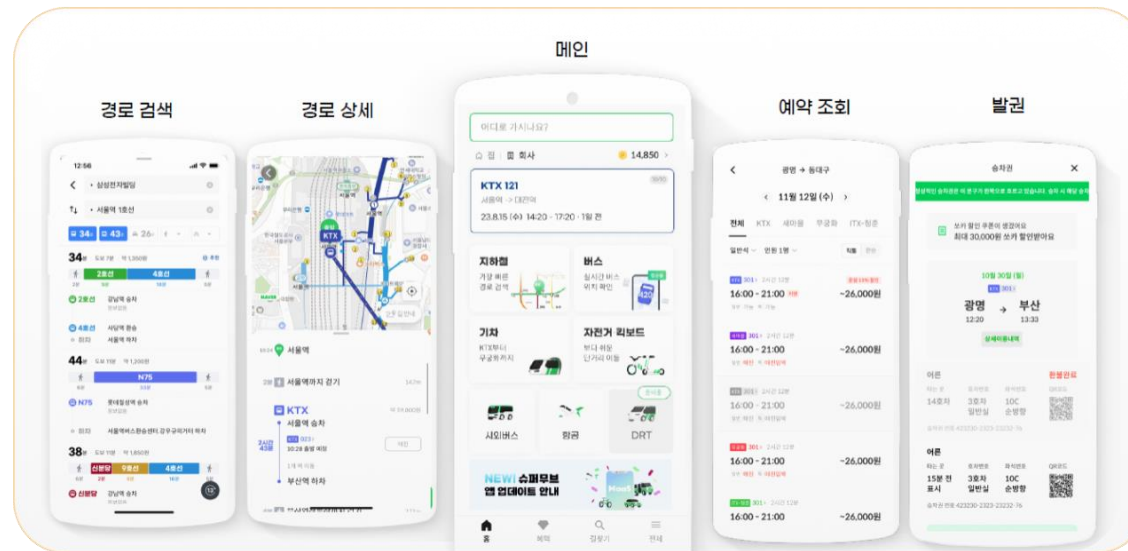
정책·정부 소식

[참고자료 >](#)

1) K-MaaS 앱 '슈퍼무브', 철도·항공 등 통합교통서비스 본격 개시 [국토교통부]

- 'K-MaaS' 서비스,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 개시(10. 28.)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 항공,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교통서비스 K-MaaS(Mobility as a Service)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정식 출시. '슈퍼무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

K-MaaS 슈퍼무브 앱 이용화면 (출처: 슈퍼무브 제공)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 검색,
교통수단 실시간 시간표 조회,
예약 및 결제를 한 번에!



2)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규제특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 의결(10. 2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 (2004년 도입)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지역특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0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고, 현재 143개 시군구 내 176개 특구(49개 특구 해체·통합)가 지정되어 운영 중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 (개)	10	6	5	3	3	1	3	19	14	16	16	13	30	21	14	2	176

-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임. *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현행 「의료법」 제56조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의료광고 외국어 표기 허용 구역

- ①외국인전용판매장 ②보세판매장
③제주도 지정면세점 ④국제선 공항
⑤무역항 ⑥관광특구(문체부)

정책·정부 소식

[참고자료 >](#)

- 특례 적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총 **4곳***이며,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임.
 - * ①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②스마트메디컬 특구(서울 영등포구), ③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④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 해당 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총 4곳)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매출,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미라클 메디특구
(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
(대구 중구·수성구)

특구(총 4곳)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이용 편의성 확대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책·정부 소식

참고자료 >

3) 인천국제공항 '24년 3분기 국제선 여객 실적, 개항 이래 최고 기록(분기 실적)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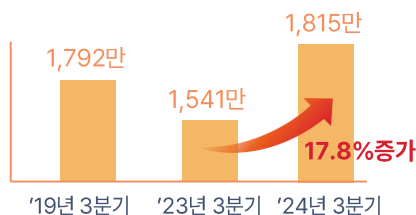
- '24년 3분기 국제선 여객 실적 개항 이래 최고 기록, 운항 실적 역대 최다기록 경신
-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3분기 국제선 여객 수 1,815만 6,842명을 기록하며 '01년 개항 이래 가장 높은 분기 실적을 달성
- 하계 성수기 및 추석 연휴 여객 증가, 중국 노선 여객 회복 등이 이번 실적 달성의 주요 요인
- 3분기 국제선 운항실적(여객기 및 화물기) 또한 '19년 동기(10만 2,363회) 대비 3.2% 증가하며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

*대륙별 여객 실적은 동남아 노선(502만 3,073명, 전체의 27.7%), 일본 노선(439만 1,793명, 전체의 24.2%), 중국 노선(290만 306명, 전체의 16.0%), 미주 노선(179만 1,340명, 전체의 9.9%), 동북아 노선(172만 141명, 전체의 9.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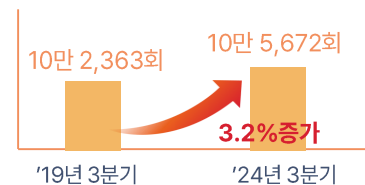
출처: 여행신문

국제선 여객 실적 (단위: 만명)



자료: 여행신문

국제선 운항 실적 (단위: 만명)



자료: 여행신문

기타 (원문 확인-링크 클릭)

-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건다 \(공정거래위원회, 9. 19.\)](#)
- [2024년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22명 정부포상 \(문화체육관광부, 9. 27.\)](#)
- [10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부, 9. 30.\)](#)
- [규제샌드박스로 공유자전거 신속 재배치 \(산업통상자원부, 10. 23.\)](#)

업계 소식

[참고자료 >](#)

1) 중국 정부, 한국 포함 9개국 무비자 입국 허용...여행업계, 중국 관광 활성화 기대

- 중국 정부, 한국 포함 9개국 대상 무비자 정책 시행 발표(11. 1.)
 - 중국 외교부는 한국 포함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구·친지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동안 중국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무비자 정책 시행**을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을 무비자 대상으로 포함한 첫 사례임 **(2025.12.31까지 유효)**
 - 국내 여행업계는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 만큼 **내국인의 중국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중국 무비자 정책 도입 전후 변화

<도입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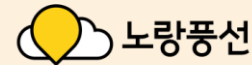
주요 방문객	비자 발급 대행 포함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50~70대 중장년층
비자 발급 기간	일주일가량 소요
비자 발급 비용	가장 저렴한 단수(일회용) 단체 비자 약 6만원



<도입 이후>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 만큼
중국 여행에 소극적이던 20~40대의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국내 주요 여행사의 중국 여행 시장 공략



- MZ세대 및 가족 단위 여행객 타깃 테마 상품 기획
- 중국행 항공 좌석 확보에 총력



- 동계 시즌 중국 인기 여행지(쿤밍, 리장 등) 상품 강화
- 대도시 중심(베이징, 상하이 등)의 단기 여행상품 라인업 확대 예정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 9개국: 한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업계 소식

[참고자료 >](#)

2) LCC도 일등석 생긴다 ... 티웨이항공, LCC 최초 일등석 도입

• 티웨이항공, 저비용항공사(LCC) 최초 일등석 좌석 도입 발표(10. 28.)

- 티웨이항공이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중 최초로 B777-300ER 기종에 퍼스트클래스(일등석)를 도입하여 장거리 노선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해당 항공기(B777-300ER)에는 294석이 탑재되며 **일등석 6석**, 비즈니스클래스 53석, 프리미엄이코노미 34석, 이코노미 201석으로 구성될 예정.
- **LCC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프리미엄 좌석 강화**
 - 중·단거리 노선을 집중 운항하며 수익성을 높였던 LCC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각 항공사는 그간 차별화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이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운영해 왔으나 일등석은 도입하지 않았음.
 - 티웨이항공의 일등석 도입은 **장거리 노선에서 수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 이코노미 좌석 대비 8~9배 높은 요금으로 판매될 예정임.

B777-300ER 도면 앞자리 일등석(총 6석)



출처: 티웨이항공

LCC 차별화 전략 티웨이항공의 일등석 도입



업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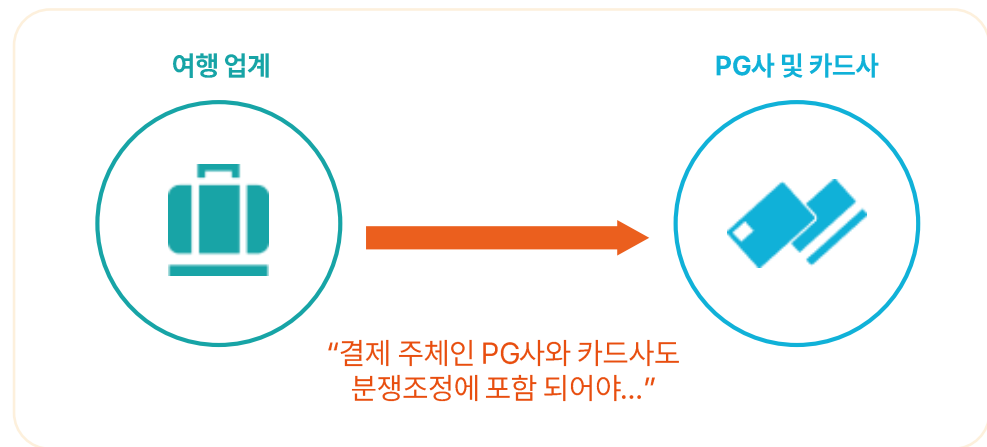
[참고자료 >](#)

3)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환불 관련 집단분쟁조정, 11월 중순 결론 예정

- 9월 시작된 집단분쟁조정, **11월 중순 결과 발표** 예정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 환불 문제**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 최종 조정 결과는 11월 중순 발표될 예정임.
- 여행업계, **PG사·카드사 참여** 요청하며 법무법인과 공동 대응
 - 티몬과 위메프 측으로부터 여행 판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여행업계는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도 분쟁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법무법인**은 PG사와 카드사도 분쟁조정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분쟁위에 공식 제출함.



출처: MBC뉴스



업계 소식

참고자료 >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9,004명...조정 결정 수락 시 전원 보상 가능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총 9,004명(중복 제외)**.
- 분쟁위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 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임.

*집단분쟁조정은 피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집단분쟁조정 요청 조건

- 피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 50명 이상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경우



신청 인원
총 9,004명(중복 제외)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보상절차

사업자 조정 결정 수락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

비참여 소비자 보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보상 계획안 제출
사업자가 보상 계획안을 제출

기타 (원문 확인-링크 클릭)

- [2배 성장과 16% 하락...희비 엇갈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 \(여행신문, 10. 16.\)](#)
- [소노, 580억으로 에어프레미아 2대주주 지분 11.6% 인수 \(조선비즈, 10. 28.\)](#)
- ["인천~발리 비행기 매일 뜬다"... 제주항공, 신규 취항 \(파이낸셜뉴스, 10. 28.\)](#)
- [모두투어 "NBA 직관 투어 상품 30분만에 매진" \(파이낸셜뉴스, 10. 23.\)](#)
- [일본 선박 여행객 증가세...수요 불잡는 여행업계 \(여행신문, 10. 7.\)](#)

지역 소식

[참고자료 >](#)

1) 컨슈머인사이트 '2024년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발표 ... 강원특별자치도 1위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1위 등극(10. 8.)
- '2024년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1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함



'빵의 도시' 대전,

MZ세대 여행 트렌드 공략으로 10위권 진입

- 대전은 만족도 조사 8년 동안('16년~'23년) 7번의 꼴지(16위)를 기록
- 올해 '빵의 도시'를 테마로 여행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여행 트렌드를 공략,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함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1위 등극(10. 8.)

- '16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1위 차지
- '실거리(2위), 놀거리(4위), 볼거리(5위)'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여행 환경 쾌적도(10위)'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무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와 상도덕 이슈 등으로 7위로 하락

- 조사 이래 7년간('16년~'22년) 부동의 1위였으나, 지난해 4위, 올해 7위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 물가, 상도덕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급락한 것으로 분석하며, 먹거리 항목에 대한 평가도 하락해 여행지로서 매력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함



지역 소식

[참고자료 >](#)

2)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항차, 2025년 대폭 확대 ... '日·홍콩·대만' 노선도 신규 개설

-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2025년 30항차* 입항** 예정(10. 25. 발표)
 - 인천시는 '**25년 크루즈선의 인천항 입항**이 올해(16항차) 대비 **대폭 늘어난 30항차**(기항 18, 모항 12)로 예정됨에 따라, **약 7만 6000여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고 있음.
- **신규 관광코스**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인천항은 일본-홍콩-대만 기류 항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롯데관광개발 전세크루즈) 개설로 다양한 해외 관광객의 유입을 목표로 함. 또한, 인천항에 처음 입항하는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 개최 및 홍보관 운영, 셔틀버스 증편을 추진하여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강화할 예정.



출처: 미디어인천신문

국제 크루즈선 관광 강화



*항차: 크루즈 선박이 항구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기항한 후 다시 돌아오는 운항 횟수

지역 소식

[참고자료 >](#)

3) 김천, 제1회 김밥축제에 10만 명 운집 ... 내년도 예산 대폭 확대

- 인구 13만 도시인 김천시에 김밥축제 즐기러 10만 명 몰려
 - 지난 10월 26일과 27일, 김천시가 사명대사공원과 친환경생태공원 일대에서 개최한 '제1회 김밥축제'에 예상(2~3만 명)을 뛰어넘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림. 시 관계자는 '김밥 축제를 통해 김천을 알렸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진 바, 다음 축제부터는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김천시의 역발상 전략, '**김밥천국**' 이미지 활용
 - 김천시는 도시명에서 연상되는 '김밥천국' 이미지를 활용해 지역 축제 기획, 이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을 받았음. 향후 김천시는 일회용품 절감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더 많은 김밥 종류 제공, 축제 서비스 인프라 강화 등 김밥축제를 김천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김천시 김밥축제 개요



참여자 수
예상치를 초과한
10만 명의 인파



예산 확대
향후 축제를 위한
예산 지원 예정



신선한 아이디어
도시명에서 연상되는
'김밥천국' 이미지 활용



미래 개선 사항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출처: 경향신문

지역 소식

[참고자료 >](#)

4)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 내년 8월 운행 재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4년 만에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 재개 예정 발표(10. 28.)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과 협의를 통해 연천역-백마고지역 간 셔틀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 '19년 4월 중단된 양 역간 통근열차는 내년 8월 운행 재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시설 점검 및 개보수에 약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해당 구간은 '19년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로 통근열차 운행 중단, 백마고지역은 연장 없음 등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었던 구간으로, 연천군 관계자는 “통근열차 운행 재개로, **연천 북부와 철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연천역-백마고지역
통근열차 운행 재개



출처: 연합뉴스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교통 편의성

연천 북부와 철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



인프라 투자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한 120억 원 배정

기타 (원문 확인-링크 클릭)

- 울산 '최초' 반려동물 축제 '대박' 예고 (파이낸셜뉴스, 10. 24.)
- 강원 태백시에서 폐광지역 활성화 방안 찾는다 (행정안전부, 10. 10.)
-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10. 4.)

해외 관광 동향



'24년 9월 일본 방문 외국인, 월간 기준 역대 '최다' 기록... 한국인 방문객 1위



- ▶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287만 2천 명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이 65만 6천 명으로 1위를 차지함
- ▶ 올해 일본 방문자 소비액은 9월까지 총 5조8,582억 엔(약 5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치였던 5조3,065억 엔(약 48조5,000억 원)을 초과

[참고자료 >](#)

독일, 항공교통세 인상 여파로 인바운드 관광 타격... 항공사 노선 축소



- ▶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항공사에 부과하는 항공교통세*를 약 24% 인상함
- * 비행거리에 따라 티켓당 15유로(약 2만 2천 원)에서 70유로(약 10만 4천 원) 부과
- ▶ 라이언에어 등 주요 항공사들이 독일 노선 운항 감축을 발표하며 이에 따라 독일 방문객도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료 부과 제안 논란... 보수 작업 자금 마련 목적



- ▶ '19년 화재로 손상된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후 5년여의 복원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 8일** 재개관할 예정
- ▶ 프랑스 문화 장관 라시다 다티는 **관광객 입장료(5유로)** 부과를 제안했으나, **무료 개방 원칙**을 지지하는 교구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힘

[참고자료 >](#)

'세계 최대 규모' 이집트 대박물관 시범 개관



- ▶ 올해 10월 16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집트 대박물관**은 부지면적 약 48만m², 공사비용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박물관임
- ▶ 박물관 정식 개관 후 **고대 유물 약 10만 점** 전시 계획이며, 이집트 내 주요 박물관의 유물들이 이곳으로 이전될 예정임

[참고자료 >](#)

기타 (원문 확인-링크 클릭)

- ["中 국경절 관광은 늘어났지만 소비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 (연합뉴스, 10. 9.)
- [루프트한자, 미국서 유대인 탑승 거부했다가 54억원대 과징금](#) (연합뉴스, 10. 16.)
- [홍콩, 내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벌금 최대 1천700만원](#) (연합뉴스, 10. 21.)

협회/유관기관 동향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024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교육 실시

일자/장소: 2024. 11. 29.(금) /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

참가대상: 카지노 관련업종 실무자

주요내용: 위조지폐 감별법,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검사 및 제재 사항, 실무 교육 등

*자금세탁방지(AML)제도 :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

참가방법: 홈페이지(www.koreacasino.or.kr)에서 온라인 신청



이슈 브리프

국가별 비자규정과 전자여행허가제도



비자(Visa)의 의미와 국가별 비자 규정

‘보증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vise’에서 유래된 단어 **비자(Visa)**는 현재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하며, **여권**은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여행자 국가에서 증명해주는 문서**를 뜻함.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여권의 유효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입국 목적의 정당성 등을 검사받고, 이를 통해 입국을 신청할 자격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려면?






*여권과 비자의 차이

여권: 여행자 국가에서 이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문서
비자: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

출처: YTN

주요 국가의 비자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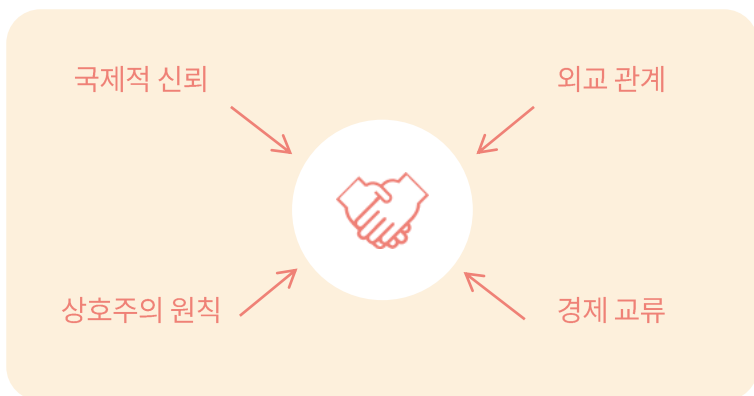
 미국	비이민 비자 B1/B2 비자(관광 및 비즈니스), F 비자(학생), H 비자(취업)가 대표적이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인터뷰를 통해 비자 발급 여부 결정
 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의 쉥겐협약은 유럽 29개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비셴겐국가 국민은 쉥겐 지역에서 출국 이전 180일 동안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
 중국	L비자(관광), M비자(비즈니스) 등이 있으며, 비자 발급 신청자는 중국대사관에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진행. 현재 한국 등 9개국 대상 한시적 무비자 정책 시행 중 (2025.12.31까지 유효)

비자 면제 제도

최근 많은 국가들이 외교적 관계, 경제 교류 등의 목적으로 **비자 면제 제도를 실시**하는 추세. **무비자 입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 국민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을수록, 그 국가에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국적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큼. 또한, 해당 국가 국민이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적고,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특정 국가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게 하고,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무비자 협정의 의미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 협정





- 사증 없이 197개국 입국 가능 ('24. 8월 기준)
- 114개국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90일 또는 그 이하 기간 동안 무비자 체류 가능
- 무비자협정은 주로 관광, 비즈니스, 회의 참가 등과 같은 단기 체류 목적으로 한정
- 체류 기간 동안 취업이나 학업과 같은 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전자비자(e-Visa) 시스템

외국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비자(e-Visa)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 전자비자 시스템은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된 입국 절차로 이용자 편의, 시간 절약, 종이 서류 감소 등의 효용 제공.

국가별 전자비자(e-Visa) 도입 사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3월 1일부터 전자비자(e-Visa)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 및 단기 체류 신청 절차 간소화. • 전자비자 발급은 90일 이내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체류 단수비자에 한하며, 신청자는 일본 전자비자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전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가능.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에 전자비자를 도입, 현재 171개 이상의 국가 국민들이 인도 전자비자(e-Visa) 신청 가능. • 인도의 전자비자는 관광, 비즈니스, 의료 목적 등으로 발급. • 신청자는 인도 전자비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후, 발급받은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 가능함.
 튀르키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에 전자비자를 도입했으며, 특정 국가의 국민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비자를 신청하여 입국 가능. • 튀르키예 전자비자는 발행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하며, 최대 90일까지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에 전자비자를 도입했으며, 현재 80개국 국민들이 베트남 전자비자 신청 가능. • 베트남 전자비자는 관광, 비즈니스,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되며, 베트남 정부의 전자비자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단, 우리나라 국민은 45일 동안 입국 목적에 상관없이 비자 면제)

ETA(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들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1996년 호주에서 최초 도입. 이후 미국은 2009년 테러를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ESTA(전자여행허가제,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의 신원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현재는 호주, 미국, EU, 한국 등 **전 세계 주요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도입 취지는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입국 요건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있음. ETA 신청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상대국은 이를 통해 사전 신원 조회 및 입국 목적을 확인 후 입국 자격 여부를 결정함.

전자비자(e-Visa)와 전자여행허가제도(ETA)의 차이

구분	전자비자(e-Visa)	전자여행허가제도(ETA)
입국자격	실제 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상태	무비자 입국 가능자 대상의 사전 입국 허가
적용 대상	비자가 필요한 국가 국민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 국민
발급 절차	목적별로 다양한 심사 기준과 요건	온라인으로 정보 입력 후 심사 완료
주요 목적	관광,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입국 목적에 대응 가능	관광, 비즈니스, 단기 방문 등 제한된 목적

주요 국가들의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현황

	명칭	비용	소요시간	유효기간
미국	ESTA	21달러	최대 72시간	2년
캐나다	eTA	7캐나다달러	최대 72시간	5년
호주	ETA	20호주달러	최대 12시간	1년
뉴질랜드	NZeTA	52뉴질랜드달러(앱) 58뉴질랜드달러(웹)	최대 72시간	2년
유럽연합	ETIAS	7유로	최대 96시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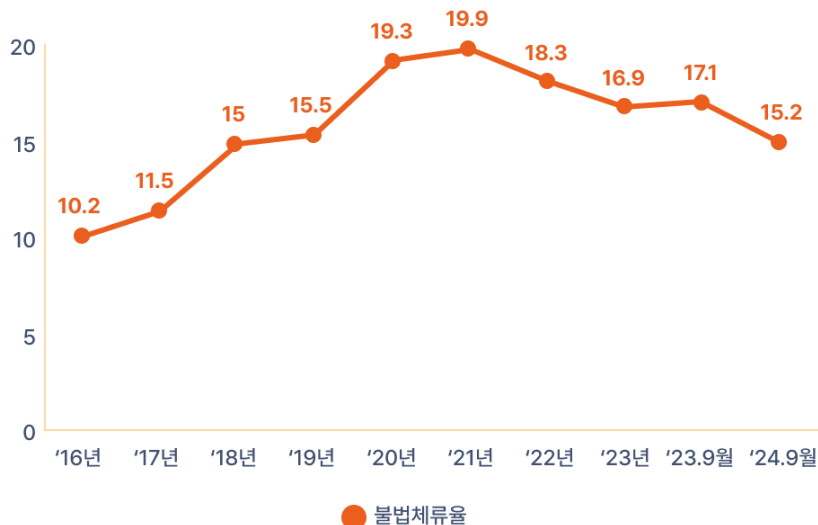
출처: 여행신문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제도) — 도입배경

불법체류외국인 연도별 불법체류율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4년 9월) >

(단위 : %)



- ① 한국은 외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됨
- ② 무비자 입국 대상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 **외교적 마찰이나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우려**
- ③ 감염병 발생 시, 위험 지역 거주 또는 방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또한 부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K-ETA 제도**가 필요!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제도) — 개요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개인 정보와 여행 정보를 미리 제출하면,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심사를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K-ETA 허가는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음.

※단, K-ETA 허가가 있어도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최종 심사로 입국 여부가 결정됨.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방문의 해('23~'24년)'를 맞아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일본, 미국, 호주 등 22개 국가·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출처: K-ETA 포털(www.k-eta.go.kr)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아시아 (5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 (2개)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 (13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2개)	뉴질랜드,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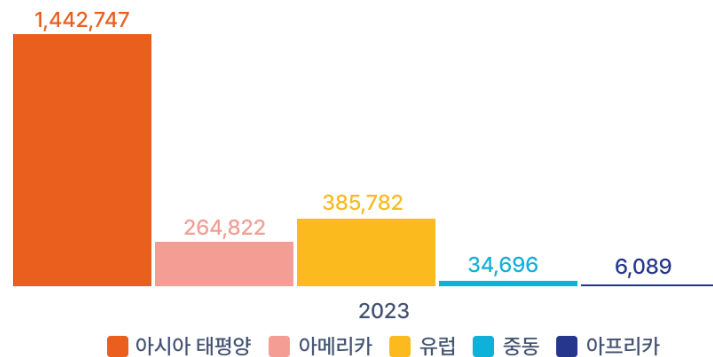
출처: K-ETA 포털(www.k-eta.go.kr)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제도) —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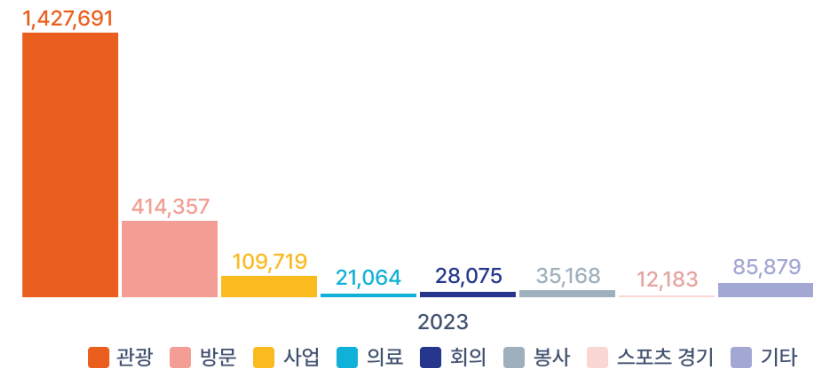
2023년 법무부에서 공개한 '23년 K-ETA 통계에 따르면, K-ETA 도입 이후 '23년 말까지 총 213만 4,136명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륙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신청(144만 2,747명)했고, 그 다음으로는 유럽(38만 명), 아메리카(26만 명), 중동(3만 명), 아프리카(6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K-ETA 신청자의 입국 목적으로는 '**관광**'이 142만 7,691명으로 1위, '방문'이 414,357로 2위, '사업'이 109,719로 3위를 기록함.

대륙별 신청현황



입국목적별 신청현황





출처: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현황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제도) — 이슈 및 대응 방안

K-ETA 시행 이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가 증가하며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에서는 K-ETA가 반한(反韓) 감정을 유발하고 관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 법무부 또한 여권 자동판독 기술 도입 및 단체 신청 절차 간소화, 다국어 서비스 확대, 증빙서류 제출 기능 추가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K-ETA 개선 방안**을 검토.

K-ETA는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사전 심사로 보안과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불법 체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자리잡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관광 시장에서 **국가별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수적**. K-ETA와 같은 출입국 관련 제도는 **각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

 입국 거부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한 해 9,947명의 태국 관광객이 K-ETA 불허로 한국 방문 취소 · '23년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이 K-ETA 불허를 받음. · 태국의 한 유명 배우와 그의 가족 18명이 K-ETA 불허를 받음.
 법무부 반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이 K-ET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들 가족은 '22년 4월에 이미 K-ETA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 · '태국 배우 가족...탑승 수속 과정에서 정보 기재 오류로 인해 비행기 탑승이 불가'로 확인 ·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오히려 감소 ('21. 12월 기준 14만 3천 명 → '24. 9월 기준 14만 2천 명)



참고 문헌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통계
- 주요국 외교부 및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 통계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2024년 9월)
- 관계부처 합동,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6월)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국제규제협력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2023월 12월)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제관광 재개 국면의 주요국 외래객 유치 정책 분석 (2023년 11월)
- 이민정책연구원, 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9년 8월)
- 관련 보도자료 등

1330 상담 데이터 분석 결과

('24. 10월)



데이터 분석 개요

1330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 내·외국인의 한국관광 관련 문의에 대한 실시간 상담(전화 및 문자)이 주된 서비스로, 통역, 관광불편신고 연계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분석데이터: '19년, '23년, '24년(1~10월) 기간 중 1330 상담 데이터 약 49만 건
- 분석방법: 시계열 분석 및 텍스트 분석(주제어 분석, 연관 분석 등)

주요 상담 키워드 분석

No	키워드	빈도수	'23년 대비 증감률	'19년 대비 증감률	NO	키워드	빈도수	'23년 대비 증감률	'19년 대비 증감률
1	통역	3,223	△25.8%	△67.2%	16	카드	646	63.5%	108.4%
2	택시	3,042	△12.0%	△60.3%	17	예약	644	△0.3%	19.7%
3	서울	1,907	15.4%	59.8%	18	제주	644	53.7%	16.5%
4	목적지	1,636	636.9%	266.0%	19	날씨	630	488.8%	2,150.0%
5	호텔	1,035	△5.9%	△46.0%	20	외국인	571	28.3%	81.3%
6	버스	1,034	△5.4%	9.3%	21	기사	541	100.4%	137.3%
7	시간	830	3.1%	1.5%	22	관광지	524	27.8%	288.1%
8	이용	822	49.7%	433.8%	23	안전·여행지침	452	12.4%	14.1%
9	언어	731	△7.5%	△51.3%	24	안내	452	0.9%	10.5%
10	숙박	727	619.8%	366.0%	25	분실	452	14.7%	△23.6%
11	부산	679	△8.0%	93.4%	26	교통	438	△9.5%	△16.7%
12	추천	668	20.4%	735.0%	27	신고	427	21.0%	8.9%
13	확인	666	45.4%	7.8%	28	방문	399	53.5%	262.7%
14	관광	657	23.5%	50.0%	29	진행	399	12.7%	850.0%
15	방법	655	△1.2%	172.9%	30	승객	398	126.1%	729.2%

- ①'호텔, 숙박': 10월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숙박 키워드인 '호텔'은 '23년 및 '19년 동기 대비 언급량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19년 대비 급감(△46%)함. 반면 '숙박' 키워드 자체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관광객의 숙박형태가 호텔 외에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②'날씨': '19년 대비 압도적인 언급 상승률(2,150%)을 보인 키워드는 '날씨'로 야외 나들이가 증가하는 가을 시기에 지역별 날씨 관련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월간 트렌드 키워드* 분석 * 신규 상승 키워드 및 문의량 급상승 키워드

• 키워드1. 단풍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256	-	-	1	7	6	1	7	31	74	129	100.2%	142	58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	증감율(전월비)	No	키워드	빈도	증감율(전월비)
1	서울	36	44%	1	가을	8	0%
2	명소	17	55%	2	설악산	7	133%
3	부산	15	67%	3	대구	7	New
4	추천	13	8%	4	내장산	7	250%
5	케이블카	9	800%	5	남이섬	6	500%

- '단풍' 언급량이 6월 이후 지속 증가하며, 전월 대비 74.3% 상승함. 연관 키워드는 '서울, 명소, 부산, 추천' 키워드 순으로, 특히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단풍 관련 정보(지역별 단풍시기, 단풍 명소 등)의 수요가 높았음.

• 키워드2. 등산관광 * 분석 키워드: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속리산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451	32	34	34	45	36	28	26	44	53	119	15.7%	142	94

<연관 키워드: 장소명>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설악산	47	104%	1	예약	25	56%
2	내장산	23	360%	2	공원	24	140%
3	지리산	20	43%	3	단풍	21	250%
4	서울	19	138%	4	버스	17	143%
5	속초	16	220%	5	터미널	17	1,600%

- 단풍시기와 맞물려 '설악산, 내장산, 지리산' 등의 등산관광 키워드가 다수 언급되며, 전월 대비 문의량이 124.5% 증가함. 특히, 영어권 문의가 전월 대비 33%(15건 → 19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인기 등산관광지 예약 및 이동방법 관련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키워드3. 국화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26	-	-	-	-	-	-	-	-	4	21	-	22	24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축제	24	243%
2	해운대	7	New
3	진천	4	New
4	대추	4	New
5	드림파크	4	New

<주요 카테고리>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축제/공연	67%	New
2	관광지	33%	300%

- 매년 10월 경 '국화'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해운대 국화 축제' 등 꽃 축제 관련 한국어 문의가(94.4%)가 다수로 계절특화 콘텐츠로써 문의빈도 급증시기에 앞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키워드4. 디지털관광주민증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454	18	24	27	32	34	63	59	68	49	80	18.0%	33	-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발급	38	111%
2	할인	14	133%
3	지역	12	200%
4	로그인	10	43%
5	가입	8	60%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6	설치	8	New
7	사용	7	133%
8	혜택	7	600%
9	핸드폰	5	New
10	거주	4	New

- '디지털관광주민증' 언급량이 전년 동월 대비 142.4%, 전월 대비 63.3% 급증함. 상위 연관 키워드는 '발급, 할인, 지역' 등으로 발급 방법, 할인 금액 및 적용 지역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문의 비중이 높음.

• 키워드5. 축제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1,956	130	122	247	257	231	152	136	140	232	309	10.1%	273	272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 관광지 및 활동>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지도	42	950%	1	부산	35	59%
2	시간	31	158%	2	볼꽃	30	△32%
3	문자	30	100%	3	서울	28	△18%
4	요청	29	263%	4	국화	19	375%
5	정보	24	50%	5	공원	14	0%

- 3~4월 이후 감소했던 '축제' 언급량이 축제 시즌(9~10월)을 맞아 대폭 증가함. 특히, 서울 여의도볼꽃 축제, 지역 국화 축제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유명 축제 관련 문의가 많은 만큼, **각 지자체에서 축제 장소 안내 및 운영시간 등 주요정보의 적극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키워드6. (창덕궁)후원

빈도추이											월평균 성장률	빈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3년 10월	'19년 10월
148	3	8	15	23	23	12	6	3	21	34	31.0%	25	10

<연관 키워드>				<연관 키워드>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No	키워드	빈도수	증감율(전월비)
1	예약	22	83%	6	온라인	6	New
2	가능	12	1100%	7	카드	6	New
3	구매	11	1000%	8	입장권	6	New
4	방문	9	New	9	관람	6	25%
5	해설	7	40%	10	진행	5	New

- '(창덕궁)후원' 언급량이 전월 대비 61.9% 증가하였으며, 전체 문의량 중 영어 문의 비중이 64.0%를 차지함. 주요 문의내용은 **후원 입장, 예약 및 해설이 포함된 특별관람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 다수.** 외국인의 경우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 사전예약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당일 현장 오프라인 예매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별첨

관광 사업체 수: 35,007개, '22년 기준 전년대비 4.3% 증가

(단위: 개, %)

구분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계
2019년	18,223	4,657	4,189	2,981	2,218	1,040	17	33,325
2020년	16,660	6,079	3,237	2,689	2,223	1,110	17	32,015
2021년	17,433	6,582	3,337	2,611	2,372	1,201	17	33,553
2022년	17,865	7,372	3,524	2,760	2,155	1,314	17	35,007
증감률	2.5	12.0	5.6	5.7	△9.1	9.4	-	4.3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198,626명, '22년 기준 전년대비 1.7% 증가

(단위: 명, %)

구분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계
2019년	103,311	23,863	35,644	24,811	70,658	10,235	7,925	276,447
2020년	61,784	19,752	26,446	18,124	49,930	8,383	7,105	191,524
2021년	56,009	23,586	26,812	17,453	56,320	8,413	6,688	195,281
2022년	50,493	25,835	27,995	19,119	59,154	9,031	6,998	198,626
증감률	△9.8	9.5	4.4	9.5	5.0	7.3	4.6	1.7

관광사업체 매출액: 17조 3,599억 원, '22년 기준 전년대비 65.3% 증가

(단위: 원, %)

구분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유원 시설업	관광 숙박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계
2019년	8조 6,271억	1조 836억	2조 1,487억	2조 1,337억	8조 3,627억	1조 5,273억	2조 9,304억	26조 8,137억
2020년	4,354억	6,514억	1조 1,722억	5,569억	3조 9,613억	3,837억	1조 413억	8조 2,024억
2021년	4,085억	8,416억	1조 2,517억	6,155억	5조 5,993억	6,036억	1조 1,799억	10조 5,005억
2022년	1조 3,589억	1조 2,017억	1조 6,113억	1조 5,791억	8조 7,790억	8,921억	1조 9,379억	17조 3,599억
증감률	232.6	56.8	28.7	156.5	56.8	47.8	64.2	65.3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소속 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기재 순 정렬

분류	기관명		설립연도	대표자	개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1963	윤영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션: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정상연합 • 비전: 내국인 국내관광 비중 80% 달성, 아시아 최고의 관광서비스 품질 확보,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도모
업종별 협회 (11)	1	한국호텔업협회	1996	유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등급결정, 관광호텔산업 발전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등
	2	한국여행업협회	1991	오창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및 여행종사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행업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3	한국MICE협회	2003	신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업계 교육지원 및 연구사업 진행 • MICE 산업 발전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4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	1995	최성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확립 사업, 종사자 교육 관련 기구 설치 운영 등
	5	한국테마파크협회	1985	최건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파크시설 육성관련 의견수렴 및 회원 권익 보호 • 테마파크시설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테마파크시설 사업자 및 그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6	한국외국인 관광시설협회	1964	정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진흥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복리 증진
	7	한국관광 펜션업협회	2004	신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펜션을 통한 관광산업발전 및 협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증진
	8	한국관광 유람선업협회	2017	김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유람선 사업자 권익증진 도모 및 타 관광사업 업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9	대한캠핑장협회	2013	김광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가족 레저문화,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친화적 인식 확립 등
	10	한국PCO협회	2007	오성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산업 비즈니스 환경개선 및 홍보, 업계 권익보호, 산학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1	한국휴양콘도 미니엄경영협회	1998	김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 콘도미니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회원의 권익 증진 도모

주요 특별회원사	1	한국관광공사	19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2	대한항공	1969	조원태, 우기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업은행 주도 하 대한항공 인수 후 통합 예정('20년도 확정)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외 심사 진행 중
	3	아시아나항공	1988	원유석	
	4	한국면세점협회	2000	이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면세점 산업 성장 및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5	한국국외여행 인솔자협회	2010	송동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국인의 국외여행에 대한 안내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관광객의 권익보호와 국제교류 서비스 증진 도모
	6	한국박물관협회	1976	조한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제도적 보호·육성에 이바지
	7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00	장동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인 공예문화, 디자인문화, 전통생활문화 등의 확산 및 진흥을 통해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제고
	8	한국관광 통역안내사협회	2002	박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역안내사 관련 교육,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건의 및 협력사업, 회원 홍보 등
	9	한국의 집	1957	최영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문화재단 운영 시설 전통문화 및 한식의 우수성 홍보 및 체험 제공

지 역 관 광 협 회 (17)	1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1961)
	2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1963)
	3	대구광역시 관광협회 (1981)
	4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1962)
	5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1986)
	6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1989)
	7	울산광역시 관광협회 (1997)
	8	세종특별자치시 관광협회 (2013)
	9	경기도 관광협회 (1962)
	10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962)
	11	충청북도 관광협회 (1977)
	12	충청남도 관광협회 (1962)
	1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976)
	14	전라남도 관광협회 (1962)
	15	경상북도 관광협회 (1962)
	16	경상남도 관광협회 (1962)
	1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962)